

오영훈 제주도정 핵심 과제 논의 착수

기초자치단체, 15분 도시 조성 등 추진 본격 도민 의견 수렴·특별법 개정 등 속제도 산적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행,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등이 있다.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돼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위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

역 과업 지시서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밑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은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도는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별 생활서비스 수요분석, 생활권 계획, 시범사업 발굴 등 전반적인 로드맵 작성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9월 도정 기조로 '기업하기 좋은 제주 여건 조성'을 설정해 성과가 기업으로 돌아가고 다시 연관산업으로 이어지며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 마련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 일환으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다국적 기업협회장과 만남을 갖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K-바이오헬스포럼에 참석해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을 잇달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확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도는 상장기업과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내달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민선8기 제주도정의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도민 공감 속에 실현 가능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다 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가 지난 8일 활동을 시작하는 등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여러 과제를 풀기 위한 속제도 만만치 않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나고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가 9월 중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건강생활실천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실천 운동과 단체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획 건강도시 서귀포 (하)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

“시민 주도 ‘청정 건강도시’ 실현 최선”

“오늘 몇 보 걸었어요?” “3개월간 63만보 챌린지 성공해서 상품받았어요.”

요즘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대화로 서귀포시가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에 생긴 변화의 모습들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 속 변화, 특히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을 겪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운동 부족 등에 건강 위험 건강생활실천추진협 구성 건강 서귀포시 만들기 총력

으면서 시민들은 고열량 식품 섭취와 운동 부족 등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 시정 목표로 향하는 원년으로 삼아 시민 주도의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시민건강행태=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출이나 운동 등의 바깥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고 칼로리 높은 배달음식 등의 섭취가 늘며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체 활동량 감소가 건강행태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

속 걷기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앱(워크은)을 활용, 보건소별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해 매일 1733(1일 7000보 걷고 삼시세끼 삼삼하게) 걷기 챌린지, 플로깅, 기부 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걷기실천 확산 '한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적극 동참하며 '한뿔'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 시민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상 속 1일 7000보 걷기'를 공통 실천과제로 선정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우리 동네 플로깅 챌린지, 올레길 플로깅, 범시민 플로깅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민관 협력체계를 보완·재정비해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9월 중 40여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건강생활실천 운동 전개 및 각 단체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는 단기 간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건강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산더미처럼 쌓인 해양쓰레기 12일 제주시 이호태우해수욕장에 해양쓰레기들이 떠밀려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상국기자

안전신문고 신고 4만건 육박

주정차 65%... 안전·생활불편·코로나19 신고 순

제주시 안전신문고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불법 주정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의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만8935건이다. 이는 지난해 3만6276건에 비해 7.3%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2만5467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신고 9963건(25.6%), 생활불편 신고 3131건(8%), 코로나19 신고 374건(1%) 순이었다. 불법 주정차는 횡단보도(7422건), 장애인 전용구역(7325건), 소화전(2752건) 등과 관련된 신고가 많았다. 안전 신고는 교통위반(5624건), 도로·시설물 파손과 고장(1840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생활불편 신고는 불법 광고물(1090건), 쓰레기·폐기물(246건), 자전거·이륜차 방치와 불편(206건) 등이다. 코로나19 신고의

경우엔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163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입·모임 117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 위험상황 등을 별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2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전신문고 리플렛을 비치하는 등 안전신문고 홍보와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안전 취약 계층,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복기자

서귀포시, 장애인 야간·긴급 돌봄 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서 접수

서귀포시는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긴급 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장애인은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일상생활 훈련, 원예 프로그램, 댄스프로그램, 기초교육(한글, 산수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문의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64)733-6611. 백금탁기자

-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노동이 존중 받는 지역사회, 도민이 빛나는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수놓음 공동선언문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주 고유의 협동 정신인 수놓음 문화에 바탕을 둔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 일터를 가꾸어 나가며 도민 모두가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한다.

- 다 음 -

- 노동계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제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안전 일터 문화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 경영계는 노사 상생의 수놓음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일터 혁신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준수로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한다.

- 시민사회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의식 개선에 노력하며, 고용·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에 협력하고,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시방고용노동청은 노사의 고용 유지 및 상생협력의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노인·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터 만들기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은 공동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행되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주지역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2년 9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